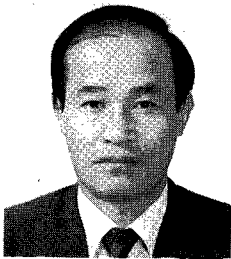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살모넬라균 감염에 대한 보험

화란에서는 중계 및 중추업자가 사육중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ST)에 감염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육자는 엄격한 위생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만 계군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은 계속되기 때문에 보험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양계인은 살모넬라균에 감염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WP. 96. 3)

□ 초산시기의 쌍란

초산시기의 암탉은 산란 시작과 더불어 배란과 수란관의 기능이 아직 미숙하여 극소란, 난황이 없는 란, 연란, 쌍란, 길거나 둥근 알을 산란율이 70% 정도 되기까지 초기 4주간에 산란하며 산란율이 80%에 도달하면 이러한 종란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쌍란, 연란, 소란이 계속적으로 산란한다면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란은 부적합한 사양관리에 의한 생리적,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다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① 20~25주시의 암탉의 체중이 초과 또는 부족한지 측정하여야 한다.
동일계군 가운데 부적당한 체중 암탉도 성성숙의 자극을 동시에 받고 산란을 시작하고 결국 난중의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준다.
- ② 점등강도와 시간은 초기 난중과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③ 암탉이 산란피크 전에 사료급여량이 어떻게 조절되었는가가 초기난중과 산란율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암탉종계는 산란율 45~55%시에 피크사료량을 급여하여야 하고 산란피크후에는 급여량을 감소하여야 한다.
- ④ 초산 전후의 영향상태와 건강상태는 성성숙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이와같은 요인은 종란의 형태와 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란주령별 적정난중의 크기는 다음 표와 같다.

주 령	난 중(g)
25 ~ 35	50 ~ 59
36 ~ 45	59 ~ 62
46 ~ 55	62 ~ 65
56 ~ 65	65 ~ 70

(WP. 96. 4)

□ 비타민 C와 부화율

고온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지연되거나 감소된다.

난백은 주로 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단백의 합성은 산란과정 중에 이루어진다.

산란과정 중에 알에 필요한 난단백은 닭의 직접적인 생존보다는 영양소 요구면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난단백의 질은 자연히 저하된다.

난단백은 저장 및 부화과정중에 계태아의 생존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난백의 질은 부화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고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비타민 C의 역할은 계속되는 난단백 합성에서 양질의 난단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비타민 C는 산란계의 난단백질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WP. 96. 4)

□ 양계장의 고양이

양계장에서 쥐를 잡기 위하여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이들 고양이가 가금콜레라를 일으키는 파스튜레라 멀토시다균을 전파하는지를 조지아 대학에서 조사하였다.

계사에서 기르는 22마리의 고양이의 구강과 구개열을 소독면봉으로 닦아내 세균배양을 실시하였다.

분리된 파스튜레라균은 모두 혈청형을 분류하였다.

9개의 농장에서 기르는 고양이 가운데 1개 이상의 파스튜레라균이 검출된 농장은 8개 농장이었다.

분리된 파스튜레라균 가운데 5개(31%)는 type 1, 3개(19%)는 type 4 이었고 1개(6%)는 type 3 이었다. 7개(44%)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들 혈청형은 가금콜레라에 감염된 닭에서 자주 분리되는 것으로 이 시험결과로서 고양이가 아무 증상없이 병원성 파스튜레라균의 보균동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감염된 고양이가 계사내에서 종계에 가금콜레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어쨌든 구서작업에 고양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고양이에게 백신접종 및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파스튜레라균에 감염된 고양이는 즉시 도태하는 등 고양이의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WP. 96. 4)